

# 한전, 사우디 열병합 사업 수주 17년간 총 매출 약 2.1조 전망

자푸라 1단계 성공적 수행 기반  
2단계 사업 경쟁 없이 단독수주

한전-아람코, 합작설립 SPC 경영  
국내기업 해외 동반수출 효과 기대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규모 열병합 발전소 사업을 다시 한번 때내며 중동 에너지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위상을 재입증했다. 사우디 풍력, 태양광, 가스복합에 이은 잇따른 승전보다.

3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Aramco)와 자푸라 2단계 열병합 발전소 건설·운영 사업에 대한 전력 및 증기 판매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두산에너지빌리티와 건설공사 계약체결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발전 설비용량 331MW, 시간당 증기 생산량 약 465톤 규모의 열병합 발전소를 오는 2029년 6월까지 건설한 뒤, 향후 17년간 전력과 증기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한전은 이번 사업을 통해 총 매출 약 2.1조 원(약 14억 달러)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특히 이번 성과는 지난 2022년 국제 경쟁입찰을 통해 수주해 올해 6월 말 준공을 앞둔 자푸라 1단계(317MW) 열병합 사업의 확장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한전이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보여준 역량과 발주처인 아람코의 두터운 신뢰를 기반으로 2단계 사업을 경쟁없이 단독 수주했다.

이번 사업은 국내 산업계 전반에도 낙수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한전과 아람코가 합작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경영을 맡고, 발전소 건설에는 두산에너지빌리티, 금융 지원에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참여한다. 발전소 운영은 한전 등이 참

여한다. 이를 통해 약 1조 2000억원 규모의 국내기업 해외 동반 수출 효과도 기대된다.

한전은 지난 2009년 라비 중유화력 사업(1200MW)을 시작으로, 2022년 자푸라 열병합 1단계, 2024년 사다위 태양광(2000MW), 루마1·나리아1 가스복합(3780MW), 2025년 다와드미 풍력(1500MW) 등을 연이어 수주하며 사우디 전력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이번 2단계 수주를 계기로 한전의 중동 지역 내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올해 하반기 발주 예정인 사우디 아람코의 후속 열병합 사업 추가 수주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가스복합·신재생에너지·전력망·에너지 저장장치(ESS)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동 에너지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국내 기업들과 팀코리아 구성을 통해 동반 진출을 확대하며 에너지 대표 공기업으로서의 중심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 부산항만공사, 中 닝보서 '불안정 공급망 대응' 공유

닝보 해상실크로드 항만협력포럼  
송상근 사장, 지정학적 위기 등 언급  
선박 입출항 최적화 협력 가능성 모색

부산항만공사(BPA)가 중국 저장성 항구도시 닝보에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공유하고 세계 주요 항만과의 협력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3일 공사에 따르면 송상근 BPA 사장은 지난달 26일 중국 닝보 시에서 열린 '제10회 닝보 해상실크로드 항만협력포럼' 고위급 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했다. 송 사장은 세계 주요 항만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부산항의 대응전략 및 주요 추진성과 등을 밝혔다.

그는 지정학적 위기 확대, 전 세계 해상운송망 재편, 공급망 불확실성 증가 등을 언급했다. 이에 항만의 역할이 단순한 화물처리 거점을 넘어 국제교역과 공급망 안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항 관련해서는, 세계 주요 환적 거점항만으로서 국제 연결망과 안정적인 항만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동북아 물류 흐름을 연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급변하는 해운·항만 환경 속에서도 공급망의 실질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항만 구축, 디지털 전환, 해외물류센터 운영 및 항만 간 협력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사장은 "공급망 위기는 어느 한 국가나 항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공동의 과제"라며 "부산항은 주요 전 세계 항만과의 협력을 강화해, 더욱 탄력적이고 안전하며 스마트한 항만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송 사장은 또 닝보저우산항만그룹의 주 마오 사장과 양자 면담을 갖고, 양 항만 간 우호 협력과 상호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닝보저우산항은 컨테이너 처리량 세계 3위, 톤(t) 기준 처리량 세계 1위 항만으로, 부산항과 함께 동북아 해상물류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송상근(왼쪽)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중국 닝보에서 주 마오 닝보저우산항만그룹 사장과 양자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PA

있다. 양측은 면담에서 동북아 물류망 강화, 항만운영 효율화, 친환경·탄소중립 대응, 스마트항만 전환 등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아울러 향후 선박 입출항 최적화(PCO) 관련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닝보 해상실크로드 항만협력포럼은 국제 항만·해운 전문 포럼이다. 전 세계 40개국에서 1000여 개 해운·항만기업, 국제기구 및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국제항만협력 행사다.

공사는 중국 현지 진출한 해운·물류기업 관계자들과도 간담회를 갖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지정학적 위기에따른 공급망 불안정성, 중국 해운·항만시장 동향, 현지 물류운영 과정에서의 애로 등이 공유됐다.

송 사장은 "현지 기업의 목소리는 부산항 운영 전략을 고도화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며 "업계 의견을 부산항 운영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관련기관과 협력해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닝보 포럼을 계기로 중국 주요 항만 및 현지 해운·물류 업계와의 협력망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또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흐름에 대응해,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환경산업기술원, 비전위 출범... 혁신·미래지향적 개선 추진

오는 11월까지 운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비전위원회'를 발족하고,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 부문에서의 선도기관 도약 목표를 내걸었다. 이 협의체는 경영 및 사업 전반에서 혁신·미래지향적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비전위원회는 올해 11월까지 운영된다. 환경산업기술원 경영기획처장을 간사로 두고, 경영과 사업의 2개 분과로 나눠 과제를 발굴·실행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대응 경영비전 분과에서는 미래성장형 경영체계 구축을 목표로 중장기 전략 및 조직체계 개편을 검토한다. 또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문화 확산 활동을 개선하고, 직무와 성과중심 인사관리 개선을 추진한다.

미래대응 사업비전 분과는 환경기술개발(R&D)·산업육성·녹색전환·환경보건 등 기관의 핵심 기능별 신사업 발굴을 맡는다. 아울러 불필요하거나 기능과 무관한 사업 구조조정을 과감히 점검하고, 사업 전반에 인공지능 전환(AI) 도입을 확산하여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갈 계획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발족한 비전위원회.

이는 향후 10년간 10배 성장을 목표로 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010 도약, 빅스텝 프로젝트의 첫걸음이다. 향후 환경분야의 선도기관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다는 전사적 의지를 담았다. 발족식은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 환경산업기술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남광우 환경산업기술원장과 공공기관 운영 전문가인 이종욱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또 이창흠 가톨릭대 교수와 이명주 명지대 교수, 이영수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경호 비전알앤이 부회장 등 학계·산업·연구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자문을 제공한다.

이 위원회는 내부 비상임이사·노동이사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간부진이 실무

에 직접 동참하고 안전을 상시 공유·논의한다. 노사가 함께 이른바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긴밀한 소통·참여경영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위원회를 운영하는 동안에는 임직원 설문조사, 경영설명회·날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다. 최종 성과물은 오는 11월 비전 선포식에서 공유된다.

남광우 원장은 "투명한 경영과 긴밀한 소통으로 조직의 안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회사의 주인인 직원들과 외부 전문가, 그리고 노동조합의 집단지성을 적극 활용해 미래지향적인 사업 영역을 확보하고 조직문화 쇠퇴를 이뤄 내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 여수광양항만공사, 자동화부두 청사진 제시

글로벌 핵심선사 관계자에 이점 알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글로벌 핵심선사 관계자들과 만나, 공사가 추진 중인 자동화부두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경쟁력 갖춘 항만 인프라·지리적 이점 등을 알렸다.

3일 공사에 따르면 이들과의 자리는 신규항로 개설을 비롯해 항만활성화 전략 등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난달 29일 선사 운항본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항만 인프라를 소개하는 현장 마케팅도 진행했다.

특히 글로벌 해운·물류의 최전선에서 핵심선사의 국내 운항을 총괄하는 소장단이 자리를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여수광양항 소개 및 맞춤형 인센티브 전략 안내 ▲자동화부두 소개 ▲선사들의 애로사항 수렴 ▲질

의응답 등이 이어졌다.

공사는 이번 행사를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여수광양항의 역동적인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올인원 현장 마케팅'으로 차별화해 소장단의 큰 호응을 얻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홍보관, 항만 안내선 승선 등을 통해 여수광양항의 지리적 이점과 부두 운영 현황에 대한 항만 인프라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 항만 안전과 관제의 핵심 기지인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현장 교육을 함께 실시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농업·농촌 '정상화 과제' 30건 선정

농식품부, TF 회의서 1차 과제 확정

정부가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정상화 과제' 30건을 선정하고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전담반)' 회의를 열고 1차 과제를 확정했다.

올해 4월 TF 발족 이후 실무 워크숍과 국민 제안 등을 통해 총 104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시급성과 과급효과 등을 고려해 30건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법·제도 사각지대 악용 편법행위 5건,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 16건, 국민 정서와 괴리된 제도 6건, 부당이익 우려 사례 3건 등이다.

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와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 이용을 적발하

고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구거부지 불법 점용 등도 집중 점검한다. 농협에 대해서는 내·외부 견제장치 강화와 선거제 개편, 인사·조직 투명성 제고 등 개혁 과제를 병행 추진한다.

현장과 괴리된 제도도 손질한다. 청년농이 부모 소유 농지·시설을 임차해도 독립 영농으로 인정해 정착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광역시 자치구까지 확대한다. 배달앱과 포장재에 중복 적용되던 원산지 표시 규제는 완화하고,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민박 사업도 제도화한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제도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트랙터·경운기 등 농기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비료 과다사용 관행 개선과 액비 시비처방서 발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복지용 쌀은 백미 중심에서 현미 등으로 확대해 수요자 선택권을 넓힌다.

/세종=김연세 기자